



국정과제 개발과정의 문제점

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등장

◆ 봉건국가의 정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

- '최고통치자를 위한 국민'에서
→ '국민을 위한 최고통치자'로 전환

◆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나라의 정치

- 겉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나
속은 여전히 봉건 정치체제의 잔재가

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정치

◆ 정치의 문제해결능력

- 정치만이 정책개발 및 정책추진 권한 보유

◆ 문제해결은 정책을 통해서

- 정책(policy), 문제해결(problem-solving)의 수단

◆ 완성도 높은 정책 개발의 조건

- 다수의 정책전문가들의 참여
-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반영

→ 문제의 근본원인 발본색원

* 헤겔의 변증법적 지양(dialektische Aufhebung)의 마지막 단계
절대지. 다수의 정(正)과 다수의 반(反)을 모두 포함한 상태

민주화와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복병

◆ 1987년 민주화

-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과 민주화 선언
- 민간 정권 사이의 평화로운 정권교체

◆ 만병통치약으로서 민주화

- 순조로운 정치발전?

◆ 민주화의 결실/버팀목? 또는 민주화의 복병?

- 대선공약

→ 정책 경쟁?, '또는' 국가 '주요' 정책의 부실화?

- 이념편향의 양대정당

→ 양대 정당의 이념대결?, '또는' 나라의 양대진영화?

-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임기

→ 장기집권의 야욕 차단?, '또는' 중장기 정책의 실종?

복병(Ⅰ); 대선 공약

◆ 대선공약단에 의한 대선 공약 개발

- 짧은 기간과 적은 인원(두달 남짓/150-200여명)
- 대외비·비공개 조건에서(다른 대선 후보자와의 경쟁)
- 선거승리용의 목적에 따라(대선 공약의 목적의 하나)
&
- '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'의 제약 하에
- '양대정당의 이념편향'의 반영

◆ 대선공약에 의한 국가 '주요' 정책의 개발

- 국가 '주요' 정책의 개발은 대선공약을 통해서
- 대선공약으로 개발되어야만 국가 '주요' 정책

* '특정인의 생각이 국가를 지나치게 흐드는 일' 발생

(복병Ⅱ); 이념편향의 양대정당

◆ 치열해진 양대정당의 이념대결

- 민주화 이후 진보좌파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보장
- 보수우파의 근본이념과 진보좌파의 근본이념을 추구하는 양대정당의 대립

* '다름'은 곧 틀림으로 여기는 근본주의적 사고방식

◆ 정권교체에 의한 정책 교체

- 보수우파와 진보좌파는 각각 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이념에 맞는 대선공약을 개발
- 집권하는 정당의 이념편향에 따라 나라 전체가 우왕좌왕
(右往左往)

(복병Ⅲ);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

◆ 대선공약의 추진기간은 5년

- 문제의 근본원인 해소 ← 중장기 정책의 개발과 추진 필수적
-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 → 정책 추진기간 5년

◆ 백년지대계(百年之大系)의 실종

- 문제 근본원인의 발본색원(拔本塞源)을 위한 정책 실종

* 저출산·고령화/교육/산업/고용/에너지 등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분야의 문제해결능력 크게 저하

* 문제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파생원인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개발

대선 공약이 국정과제로

◆ 인수위의 과제

- 행정부가 수립한 대선 공약의 이행 계획 검토
- 유사한 대선 공약 3-4개를 국정과제로

◆ 수정 불가능한 대선 공약

- 대통령 당선인의 권위에 도전
- 국민과의 잘못된 약속 인정
- 야당을 이롭게 하는 일

* 과연 부실하게 이념편향적으로 단기정책 중심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?

* 주권의 위임이 공약을 매개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, 공약을 이행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일까?

17개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

◆ 국정과제 추진에 최선

- 행정부는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로드 맵 작성
- 입법안과 예산안 마련 등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

◆ 문제해결의 벨트에 걸려있지 않은 국정과제

- 현실보다 이념에 충실(이념편향의 양대정당)
- 근본원인보다 파생원인 해소에 주력(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)
- 정권창출을 위한 인기영합주의(대선공약으로 개발되는 국정과제)

문제해결능력 거의 제로

◆ 거의 모든 국가 '주요' 정책을 결정하는
대선공약의 개발 과정과 조건

- 대선공약단에 의한 대선 공약 개발

: 완성도 낮고 부실하게 개발

: 포퓰리즘의 확대(대외비·비공개 조건 + 선거승리용의 목적)

&

: 좌와 우 이념편향의 반영

: 대통령 임기 5년의 반영

⇒ 문제해결능력 (거의) 제로

정쟁의 근원지; 국정과제(대선공약)

◆ 정쟁의 원인, 대선공약

- **부실하고 완성도 낮게 개발** (비판의 여지가 많게)
 - : 특정인의 생각이 지나치게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
 - : 정책 전문가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
- **이념편향적으로 개발** (진영논리에 따라 편향된)
 - : 현실이 아니라 이념에 보다 충실하고
 - :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이 대변되어 있고
- **문제의 근본적 해결과는 무관하게 개발**
 - : 선거 승리용, 포퓰리즘으로 개발되고
 - : 5년 내의 추진기간, 파생원인의 해소만을 위한

행정부에서 국가 '주요' 정책을 개발하게 되면,

◆ 17개 행정부가 국가 '주요' 정책을 개발하 게 되면,

: 완성도 높은 정책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(정책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
들의 폭넓은 참여 가능)

: 이념편향적 정책이 개발되지 않고

: 중장기 정책의 개발과 추진 가능

: 포퓰리즘 정책의 개발 축소 등

⇒ 대선공약에 의해서 국가 '주요' 정책이 개발될 때 발생하였던 문제
들이 발생하지 않게 됨

행정부에서 국가 '주요' 정책을 개발하게 되면

- ◆ 17개 행정부가 국가 '주요' 정책을 개발한다면,
 - 예산낭비, 행정력낭비 등 국력 낭비 축소
 -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쟁 불필요
- ◆ 대선공약은 현재의 10% 내외로
 - 대통령 후보가 추진하고 싶은 공약 20-30개 정도 개발